다카사고 패총

다카사고 패총(기원전 약 900 년)은 인근 마을의 무덤지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대형 묘지 유적입니다. 고고학적 조사와 부분적인 발굴을 통해 패총과 여러 개의 토광묘(타원형의 구덩이를 파고 시신을 매장한 무덤)가 있는 묘지의 존재가 밝혀졌습니다. 이 유적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어 있으며 패총과 무덤 구덩이의 위치도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리에-다카사고 패총관\[링크\]](#)에서 다카사고 패총에 관한 좀 더 자세한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복잡한 장례 의식의 흔적

이 유적은 조몬 시대(기원전 13,000 년~기원전 400 년) 내에서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매장 의식이 점점 더 복잡한 형태로 진화했음을 알려줍니다. 토광묘의 형태는 대체로 닳아 있는데, 시신의 팔다리는 일정한 각도로 구부리고 머리는 대부분이 북서쪽을 향한 거의 같은 자세로 매장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무덤 구덩이에서 토기와 석기, 그리고 기타 부장품이 발견되었습니다. 무덤지 내부에서는 고리 모양으로 배열된 돌이 발견되었으며, 그 장소에서 토우와 붉은 안료가 담긴 토기가 출토되었습니다. 7 개의 토광묘에서 안료의 흔적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장례 의식 과정에서 안료 가루가 뿌려졌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존 상태가 양호한 인골

산성 토양이 대부분인 일본에서는 선사 시대 무덤에서 인골이 발견되는 일이 흔치 않지만, 다카사고 패총에서는 많은 수의 인골이 깨끗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곳에서는 시신이 패총 내부의 구덩이에 매장되어 대량의 뼈와 조개껍데기에서 스며나온 탄산칼슘이 인골을 보존하는 데 도움을 주었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

다카사고 패총에서는 작살 끝이나 사슴뿔로 만든 고기잡이 도구 등 다양한 제작물이 발굴되었습니다. 이들은 인근의 이리에 패총[링크]에서 발견된 유물들과 함께 이리에-다카사고 패총관[링크]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견학 시에는 입장료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인 내용 중 일부는 영어로도 정보를 제공합니다.